

[경제]

개인 파산신청 최다… 서민경제 위기오나

경기 하강 조짐·금융환경 악화

유가·공공요금 등 물가도 불안

올해 6월 현재 개인파산 신청자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경기마저 하강조짐을 보이면서 서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소득과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와 공공요금 등 물가불안과 상승세를 계속하는 금리가 서민을 압박하고 있다.

◇평균 부채금액도 2천468만원= 30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4197명으로 5년8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달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 규모(3만8천773명)를 1만명 이상 넘어섰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0년 329명, 2001년 672명, 2002년 1천335명, 2003

년 3천856명, 2004년 1만2천317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개인파산이 늘어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개인 채무자수가 5월 말 기준으로 2만7천595명에 이르고 신청자의 평균 부채금액도 2천468만원에 달한다.

◇고유가 등으로 서민물가 '들썩'= 교유가와 사교육비 등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면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이달 넷째 주 기준으로 1㎏ 당 1천545.67원으로 2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고 경유 가격도 1㎏ 당 1천298.98원에 달해 4주 연속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올 상반기에만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무려 20.8%

8.5%나 올랐다. 이로인해 광주·전남 지역의 소비자물가(6월 기준)는 전년 대비 각각 2.4%와 2.2%씩 상승했다.

특히 올 상반기 광주지역 교육물가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0%로 전체 물가상승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광주지역 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는 1년전보다 8.6%나 올라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철도운임,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 각종 교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철도운임 상한을 평균 7.2%, 시외버스 요금과 고속버스요금을 각각 18%와 8%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하반기 내에 최종 인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버스 운행체계가 준공영제로 바뀌는 오는 9월께를 기점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광주도시철도공사도 현재 800원인 지하철 요금을 100원 올리는 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한데

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상반기에는 높았지만 하반기에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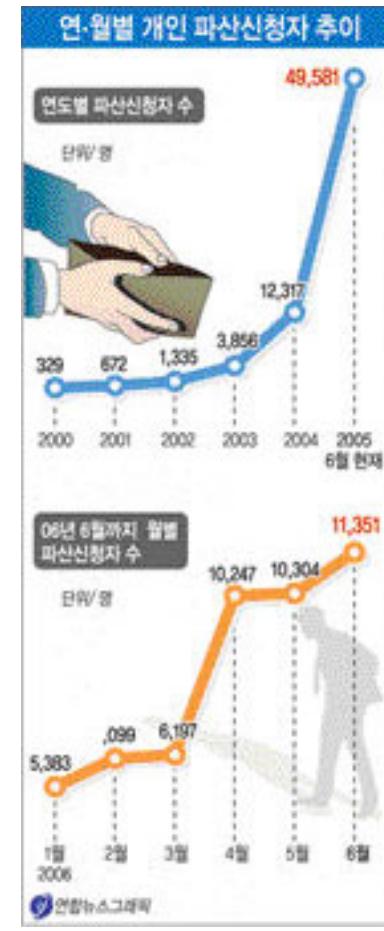
◇고금리로 서민 금융환경 악화= 콜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금융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까지 4차례에 걸쳐 콜금리 인상을 잇따라 단행, 콜금리가 9개월만에 1.0% 포인트 올랐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상승했다.

상당수의 대출상품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상당히 커졌고 한은이 앞으로 콜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체감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bungy@kwangju.co.kr



중국 수출 증가세 둔화

내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우려

중국이 경기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긴축정책에 나서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계속 둔화될 경우 전체 무역수지 흑자도 크게 줄면서 내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對) 중국 수출액은 325억8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 12.6%, 2·4분기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물론 두자릿수의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중국으로 수출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은 2002년 1·4분기 4.7%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이후 대중(對中) 수출은 2002년 하반기 이후 평균 4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갈수록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2004년 2·4분기 63.6%의 가파른 수출증가세를 보인 후 4·4분기에는 24.5%로 축소됐고 작년 2·4분기 23.5%, 4·4분기 22.6%에 이어 들어서는 10% 초반대로 떨어졌다.

중국시장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수출증가율에서도 여타 시장을 압도하면서 전체 수출증가세를 견인해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중국정부도 경기열 정진을 위해 지준을 인상 등과 같은 긴축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대중 수출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재벌총수 9% 지분으로

40% 의결권 행사

재벌 총수들이 실제 소유한 지분의 6.71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재벌의 소유자배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자배구조를 30일 공개했다.

자사주·우선주·상호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의 소유지분율(이하 친족 지분 포함)은 평균 9.17%,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은 39.72%로 파악됐다. 총수가 계열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의 소유지분 30.55%(소유자배괴리도)까지 합쳐 소유지분의 6.71배(의결권승수)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4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만 보면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율은 6.36%, 의결지분율은 37.65%를 기록해 의결권승수는 7.47배를 나타냈다.

의결권승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양(21.08배)이었고 이어 SK(16.42배), STX(14.35배), 한화(12.53배), 두산(11.62배), 삼성(6.91배), LG(6.83배), 현대차(6.13배)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한국타이어, KCC 등은 의결권승수가 1.5배를 넘지 않았다.

/연합뉴스

‘至尊’ 대우건설

경영실적·시공능력 평가 업계 1위

매각이 진행중인 대우건설이 올 상반기 최고의 경영실적을 올린 데 이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도 1위에 등극하며 ‘겸경사’를 맞고 있다.

3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2조7천650억원, 영업이익 2천 947억원, 경상이익 3천816억원으로 전체 건설회사 가운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내실도 알자 영업이익률 10.7%, 경상이익률 13.6%로 경쟁사의 2배 수준이다.

이번 실적은 바탕으로 지난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도 대우건설이 ‘왕좌’에 올랐다. 회사 창립 33년만에 처음으로 대우건설이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교통부 장관

이 매년 건설회사의 공사실적, 경영 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관공사 입찰자격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면서, 이 순위가 곧 업계 서열이나 다른된다.

올들어 대형 수주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우건설의 덕발인 나이지리아에서 8천750억원짜리 초대형 가스플랜트 공사를 따냈고, 프라임산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사업비 2조7천890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한류우드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송도 해안도로 확장 공사, 통영생산기지 2단계 4차 확장 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을 수주했고, 수원 천연, 서울 신도림 등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혈압에 좋은 건강밥상

30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고혈압 예방 밸효유 '구트다운' 출시행사에서 중장년층 시민들이 영양사로부터 고혈압 예방에 좋은 건강밥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혈압검사를 받고 있다.

러시아, 제2의 한국 자동차 수출시장 부상

올 5만6,022대 수출

대, 2004년 4만3천452대 등으로 매년 2배 가량 늘었다.

러시아 수출량이 가장 많은 현대차의 손장원 동부지역본부장은 “러시아 경제가 지난 2003년부터 오일 생산 등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클릭(현지명 킷츠), 투싼 등 전략 차종을 갖고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게 주효했다”고 밝혔다.

실제 현대차는 러시아 수입차 시장에서 지난 2004년 5월 일본의 도요타를 꺾고 ‘판매 1위’의 자리에 올라선 이후

2005년, 2006년 상반기까지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올 들어 급격한 원화절상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 3월부터

매달 판매 순위에서 도요타나 포드에 밀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러시아에 이어 한국 자동차를 많이 수입한 나라는 스페인(5만2천870대), 캐나다(5만94대), 이탈리아(4만7천951대), 독일(4만3천416대), 호주(4만1천901대), 사우디아라비아(3만5천928대), 영국(3만981대), 남아프리카공화국(2만4천206대)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5월까지 한국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한 국가는 총 187개국으로, 이중 1만대 이상은 26개국, 1천대 이상은 71개국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금리 5.48%… 올 첫 상승세

은행들이 대출확대 경쟁으로 하락세를 거듭하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콜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6월중 각종 예금 및 대출금리가 일제히 올랐으며 저축성예금 금리는 3년5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

/연합뉴스

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분 기준)는 전월보다 0.07%포인트 오른 5.48%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시장실제금리의 상승세 속에서도 은행들의 대출확대 경쟁으로 인해 올해 1월 연 5.64%에서 2월 5.58%, 3월 5.46%, 4월 5.42%, 5월 5.41% 등으로 계속 하락했다.

이번 실적은 올해 1월 5.64%로

는 2005년 12월 5.41%로 5년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완전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28일 완전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3천536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협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1천109명(투표율 93.98%)이 투표해 2만2천502명(찬성

률 54.74%)이 찬성, 가결시키면서 올해 임금 협상을 완전 타결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총회시 정시간 8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단협규정에 따라 투표 후 곧바로 여름 집단휴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인씨엔엠					